



294 전시 리뷰 Exhibition Review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SWNA-ANSW over the Last 10 Years

SWNA-ANSW,
지난 10년

편집부
Editorial Board

전시명: 맥락 속의 오브제(Objects in Context)
전시 장소: 코사이어티(cociety)
전시 기간: 2021.04.09-18
사진: 홍기웅(CFC)
포스터 및 전시 그래픽: 박신우(Paper Press)

이 글은 디자인 오피스 SWNA가 지난 10년(2010-2020) 동안 디자인한 제품, 가구, 공간,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디자인 과정과 결과, SWNA 소속 디자이너들이 만든 의자 10점 등을 소재로 한 전시 'SWNA-ANSW'를 소개한다. 이 전시를 계기로 SWNA는 산업디자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 매체, 소재 등을 이종 교배하고 실험한 그들의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보여준다. 전시에 소개된 오브젝트들은 SWNA가 디자인을 대하는 태도, 생각을 짐작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제품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드러나지 않는 이면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역으로 디자인의 본질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을지 모른다. SWNA는 디자이너 이석우가 이끄는 디자인 오피스로 Suk Woo and Associate의 약자이다. 이번 전시 제목인 'SWNA-ANSW'는 SWNA 소속 디자이너의 상징인 Associate를 전면에 내세워 디자이너 10명, 그리고 그들이 디자인한 나무 의자 10점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았다.



This exhibition introduced design outcomes and processes in many areas, such as design products, furniture, objects, spaces, and environments that the design office SWNA designed from 2010 to 2020. In addition, 10 chairs created by SWNA designers were displayed. With this exhibition, SWNA showed the step-by-step design processes in which the design office dealt with a hybrid of various design fields, media, and materials, and then experimented with them as it centered around industrial design. Objects that SWNA has worked on over the past 10 years enable viewers to understand the attitude, stance, and thoughts SWNA has towards design. Through the hidden process behind a product—from its ideation to release on the market—we can move backwards in our approach to the core part of the design. SWNA is a design office led by Lee Suk Woo, and the name of the company is an abbreviation for Suk Woo and Associates. The title of this exhibition, “SWNA-ANSW,” tried to capture the meaning of respect for 10 designers and the chairs they designed by placing “Associates” (symbolizing designers working for SWNA), in front to make “ANSW.”



OBJECTS
IN
CONTEXT

SWNA
ANSW
LAST
10 YEARS

맥속오브
관우체

SWNA
ANSW
지난
10년

디자인 오로소 SWNA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디자인
제품, 가구, 오브제, 공간, 환경 등 여러 분야의 공예품과
디자인 과정을 소개한다. 대표작 SWNA 소속 디자이너
만든 의자 10점도 전시한다.

이번 전시로 SWNA는 10년 디자인을 응수하는 것만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것만이다. 지난 10년간의
오브제는 SWNA가 디자인을 다루는 방법과 그에 따라
동일한 결과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준다. 재료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거쳐 버려지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안으로 디자인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SWNA는 디자이너와 디자이너는 디자인 오로소
Suk Woo and Associates의 창립자이다. 이번 전시를 위한
SWNA-ANSW는 SWNA 소속 디자이너의 창립인
Associates를 전면에 내세워 디자이너, 연구, 크로, 크로
디자인(한-나무)이 10년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엑스트라 아카이브 3 Extra Archive 3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프로세스북: 코사이어티에서 SWNA의 전시 '맥락 속의 오브제'가 진행되었다. SWNA의 프로세스북에는 스케치와 프로토타입이 포함된 10년간의 작업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세스북은 이번 전시를 위해서 디자인되었다.